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와 여성의 모더니티*

-『신여성』을 중심으로-

김윤선**

〈차례〉

1. 들어가며
2.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
3. 엇갈린 주체, 선택된 젠더
4. 왜곡된 젠더, 젠더의 번역화
5. 나가며 ; 남은 과제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여성』 매체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번역의 특성과 전략을 젠더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1920년대와 1930년대 『신여성』에 실린 번역들이 그 시대가 요구했던 새로운 여성의 모더니티를 규정하고 근대 여성, 구체적으로는 신여성의 정체성의 범주를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준 모종의 전략적 지점이었음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목표 텍스트였던 한글 번역에서 시작하여 목표 언어로 가시화 된 번역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젠더적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번역 연구에 있어서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라고 명명하였다. 본고는 번역 주체의 문제, 번역 텍스트의 장르와 내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번역 텍스트에 드러나는 전략을 중심으로 과연 『신여성』의 번역 텍스트들이 당시 한국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여성문학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덕성여자대학교

의 여성 모더니티를 위해 담론화 하였던 근대 지식담론은 무엇이며 그 공과를 어떻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신여성』의 번역은 여성 젠더에게는 모더니티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동시에 남성들에 의해 선택되고 왜곡된 젠더적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적 규율과 가부장 질서의 존속이라는 한계를 지닌 비판과 저항의 텍스트이기도 하였다.

핵심어: 『신여성』, 번역, 젠더, 젠더화, 모더니티, 근대 여성 주체,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 젠더의 번역화, 여성의 정체성, 여성주의

1. 들어가며

한국에서 번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는 1975년 김병철의 『한국 근대번역문학사연구』부터라 할 수 있다. 1998년 같은 저자의 『한국현대 번역문학연구』로 이어졌지만 번역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활발하지 않았으며, 통·번역자들을 중심으로 외국어 및 외국 문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이들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에서 번역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 전후이다. 번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한 데는 기존 연구 축적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탈식민주의의 유입으로 인한 ‘번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 때문이다. 탈식민주의에서 번역은 ‘언어’적 차원에서만 논의하면 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번역활동이나 통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인문사회학 연구자들이 번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또한 번역이 실제적인 번역활동 뿐 아니라 ‘번역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에서 번역에 대한 논의는 임화의 이식문학사론이나 백철의 『신문예사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형성기에서부터 쟁점

이 되어야 했다.¹⁾ 외국 문학 유입을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 문학이 전개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혹은 그 주장의 반대 근거로라도 외국 문학과 한국 문학 사이에 그 매개가 되었을 ‘번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 문학 연구에서 ‘번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문제적’이다. 번역에 대한 논의는 이 같은 기존의 한국 근대 문학의 연구풍토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번역을 통해 한국 근대 문학의 기원과 전개를 재검토하고, 번역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주제론으로 전개되고 있다.²⁾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국 근대 문학 연구 안에서 번역의 문제를 젠더적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식민지 시기 근대 여성의 문제를 고찰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실제로는 당시 번역된 텍스트에 기반한 연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 그 자체를 젠더적 입장에서 재고하고자 하는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이다. 여성해방사상이나 서구 연애론의 유입 경로 등의 연구가 있기는 했으나 번역 보다는 유입된 사상과 작품 내용에 기반한 주제 분석과 원전 비교 연구였으며 그나마 대부분 특정 작가나 사상에 집중되었다.³⁾

1) 고전 문학 연구에서 번역의 문제는 본고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겠다. 연구 대상인 대부분의 텍스트가 한문인 고전 문학의 경우 번역은 주석과 해석 및 각 주제론을 위해 근현대 문학에서와는 다른 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구인모, 『베를렌스, 김억, 그리고 가와지 류코; 김억의 베를렌스 시 원전 비교연구』,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2007.

구인모, 『한국근대여성의 서양인식, 선양체험과 문학;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장정희, 『1920년대 타고르 시의 수용과 소파 방정환의 위치』, 『인문연구』 63호, 2011.

외래어를 포함한 신어 수용에 대해서는 이지영, 『1910년 전후의 신어 수용 양상』, 『돈암어문학』 23, 2010와 김윤희, 『한국 근대 신어연구(1920~1936년)-일상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2010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2010가 있다.

3) 이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이승희, 『입센의 번역과 성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안미영, 『한국근대소설에서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 『비교문학』 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이화형·유진월, 『서구 연애론의 유입과 수용 양상』, 국제어문 32, 국제어문학회,

이후 여성 번역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자료 분석의 어려움 때문인지 근대 초에 대한 연구는 테레사 현의 논의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형편이다.

테레사 현은 『번역과 창작-한국 근대 여성 작가들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에서 여성번역가들과 번역물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근대 문학에서 여성문학가들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나 검증이 미약한 채 대부분의 논의들이 김병철과 김옥동 등 초기 번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재서술하고 그 안에서 일반화하는 한계를 보여줬다. 더구나 번역 연구에 있어서 기존 남성 연구자들의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젠더적 고려 없이 여성주의적 연구 목표에 도달하고자 했다는 점이 한계이다. 그녀는 1920년대 다수의 여성 번역가들이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영미 작품을 원작에서 직접 번역하는 것을 배웠으며 이러한 이들의 활동이 한국의 번역 방식을 바꾸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한다.⁴⁾ 해외문학과와의 등장으로 중역에서 직역으로의 번역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견해다. 더불어 테레사 현은 이러한 여성 번역가의 출현이 중역에서 직역으로의 번역 풍토의 변화 뿐 아니라 번역문의 문체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즉 간결한 구어체를 구사함으로써 글쓰기 형식의 간격을 좁히고, 새로운 외래어 어휘를 만들었다고 여성 번역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의미화⁵⁾하지만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설득력이 약하다.⁶⁾ 과연 테레사 현의

2004.

서정자, 『콜론타이즘의 이입과 신여성 기획: 지식인 여성노동자 등장과 주의자연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4) 테레사 현, 『번역과 창작』,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21쪽.

5) 김명순의 키스와 망토, 김금주의 바이올렛과 김자혜의 로맨스, 신백희의 덴스, 버터, 케익, 장영숙이 사용한 페이브먼트와 주수원의 멜로디 등의 외래어를 그 예로 들고 있다.

6) 이화여전 중심으로 한 여성 번역가들의 활동과 실제 번역 텍스트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근거를 삼았다면 훨씬 의미 있는 연구로 남았을 것이다.

주장처럼 식민지 시기 1920~30년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번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 시기 여성들에게 소개되었던 ‘번역된’ 여성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를 통해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가고 기존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균열의 흠집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가 『신여성』에 수록된 번역 텍스트이다.

『신여성』은 1920~3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을 위한 잡지였으며 가장 영향력 있던 여성 종합지이기도 했다.⁷⁾ 당연히 가장 많은 번역 텍스트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여성』 수록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당시 여성들, 특히 신여성들의 모더니티를 위해 작동한 번역의 방식과 실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본고는 번역이 한국의 새로운 근대 여성을 기획하는 데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를 『신여성』에 수록된 번역 텍스트들 안에 기획된 젠더적 전략과 양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과연 여성 젠더의 번역이 어떤 방식으로 담론화 되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지점을 어떻게 논리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는 결국 여성주의 문학 연구의 목표이며, 번역과 젠더 연구에 있어서도 그 목표는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는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젠더와 번역에 대한 하나의 시론적 논의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번역과 젠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기와 그 해결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학 연구에서 젠더적 입장을 견지한 번역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그 연구방법론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7) 본고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정리하지 않겠다. 『신여성』이 여성 문학에 갖는 영향과 의의에 대해서는 기왕의 논저를 참고할 것.

2.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

한국 근대 문학 연구에서 번역 텍스트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그간 번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연구 대상이 되는 텍스트 자체의 문제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의 경우 해당 번역 텍스트의 원전이나 번역의 경로 등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전과 번역 경로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 착수를 위한 첫 번째 난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신여성』 번역 텍스트의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신여성』 번역 연구 역시 실증적인 작업이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대 『신여성』 편집인들이 참고하였을 일본 매체에 대한 검토 및 『신여성』 번역물들의 대다수가 중역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 원전과 일본어판, 그리고 신여성의 번역을 대조하는 작업이다. 이들 텍스트들 사이에 드러나는 담론의 차이를 통해 당시 『신여성』 번역 담론에 나타나는 젠더적 차이와 전략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방법이며, 이 방법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 방법론 외의 다른 연구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없다면 『신여성』 번역 연구는 또 다시 논의 전개를 진전시킬 수 없다. 본고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하면서, 차후 일본 매체들과의 상호 교섭 양상과 조선어 번역 과정에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남은 과제로 두고 『신여성』 매체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번역의 특성과 전략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여성』의 번역 전략을 분석할 수 있을까? 여기서 논의의 출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번역에 대한 개념 규정이며, 젠더로서의 번역담론 고찰의 연구 방법론이다. 이것 없이는 본고의 논의 자체가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번역이란 기점 언어와 목표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며 ‘기점언어’로 된 텍스트를 ‘목표언어’로 옮기는 과정⁸⁾이다. 때문에

8)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67쪽. 261쪽.

기점 언어가 번역 논의에서 그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특히 번역을 실천할 때 즉 텍스트의 번역행위를 할 때 더욱 그렇다. 『신여성』 번역물의 경우 기점 언어 상태의 원전 텍스트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신여성』 번역의 경우 번역의 경로는 당대 다른 번역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기점 언어(원전)에서 일본어로서의 목표언어(중간본), 다시 여기에서 조선어로서의 목표 언어라는 중역의 과정을 거쳤을 터인데, 마지막 최종 목표 언어만을 가지고 번역론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이 같은 번역 개념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 고려할 때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제한을 당시 번역 및 번역 연구의 특성으로 전제하면서 가시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번역 논의의 출발을 삼는 것도 필요하다. 기점 언어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번역 행위라면, 목표 언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번역 연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번역은 한 단어에서 다른 단어로, 한 문장에서 다른 문장으로 ‘현지화’⁹⁾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이동 및 교섭의 측면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화 번역, 제도 번역의 차원에서 기점 텍스트의 문화적 제도적 담론으로서의 내용과 목표 텍스트에서의 문화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식민지 시기 여성 젠더 번역론의 방법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신여성』 번역 텍스트 목표 언어 즉 발표된 번역 텍스트들에서 시작하여 이들의 기점 작품들의 정보들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젠더적 시각으로 교섭 양상을 분석하여 『신여성』에 나타나는 번역 행위에 내재된 번역 전략과 그 의미를 찾을 것이다. 그것은 17세기 이후 번역이라는 개념이 국민국가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 범주경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생긴 규율적 개념으로 작동했으며, 언어 간의 이동만이 아닌 다양한 차원의 이동과 변

9) 번역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현지화’나 ‘이국화’라는 개념은 목표 언어의 독자에게 충실할 것인가, 기점언어의 작가에게 충실할 것인가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으며 현지화에 충실한 번역을 의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국화에 충실한 번역을 직역이라 할 수 있다.

화, 혼종의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¹⁰⁾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국민국가만이 아니라 번역은 근대 주체로 부상하게 되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즉 본고는 1920년대와 30년대 『신여성』에 발표된 번역들이 그 시대가 요구했던 새로운 여성의 모더니티를 규정하고 근대 여성, 구체적으로는 신여성의 정체성의 범주를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준 모종의 전략적 지점이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페미니즘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 활동에서 젠더적 의식으로 번역 텍스트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여성 문학 연구 안에서 번역에 대한 연구 역시 기왕의 번역 텍스트와 그 맥락 안에서 젠더적 시각으로 번역된 텍스트를 재규정하는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젠더적 입장에서 번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젠더로서의 번역 연구의 방법론 개발이다. 방법론 자체가 젠더적 고려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젠더적 시각에서의 번역 연구 방법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¹¹⁾ 본고 역시 이를 위한 시도이다. 본고는 목표 텍스트였던 한글 번역에서 시작하여 기점 텍스트를 찾고 그것이 갖는 문화적 담론적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목표 언어로 가시화 된 번역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젠더적 특성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것을 본고는 번역 연구에 있어서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로 규정된 연구 방법론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신여성』에 수록된 번역 텍스트를 누가 선택하고 번역하였느냐와 관련된 번역 주체의 문제, 이들이 여성의 모더니티라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해 선택한 번역 텍스트의 장르와 내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번역 텍스트에 드러나는 전략을 중심으로 과연 『신여성』의 번역 텍스트들이

10) 박선주, 『(부)적절한 만남-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영미문학연구회, 『안과 밖』, Vol.32. 2012. 305쪽.

11) 최근 이러한 시각에서 여성주의 문학 연구에서 젠더와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하는 연구는 여성 번역가 발굴과 그들의 번역 텍스트 연구라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주의에서 번역 연구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번역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 번역가 발굴과 그녀들과 관련된 연구에서 출발한다.

당시 한국의 여성 모더니티를 위해 담론화하였던 근대 지식담론은 무엇이며 그 공과를 어떻게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전개될 것이다.

3. 엇갈린 주체, 선택된 젠더

『신여성』의 시대 즉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대적 목표는 두 개였다. 조선이 ‘서구처럼’ 근대화되고 독립하는 것! 여기에 1923년 창간되어 1934년 폐간될 때까지 여학생, 신여성이라는 독자를 위해 발행된 『신여성』의 독자이자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했던 여학생, 혹은 신여성에게는 자신들도 ‘남성처럼’ 근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하나 더 부여되었다. 그러나 그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남성처럼’이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떤 여성이 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각론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색과 탐구가 진행되었다. 때문에 갈등과 균열의 양상이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더 심했다. 봉건사회와 근대사회,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가정과 사회, 전통과 혁신이 혼재하던 장이 여성 근대화 담론의 장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가 『신여성』의 번역 담론이기도 하다. 번역 담론은 ‘서구처럼’과 ‘남성처럼’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서구의 담론들을 소개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이 담론들을 통해 여성 독자들은 남성처럼 근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

『신여성』의 번역 텍스트들을 구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신여성』의 번역 텍스트는 약 100여 편 정도이다.¹²⁾ 『신여성』이 73호까지 발행되었다는

12) 본고는 『신여성』 총 73호 중 영인본으로 묶인 43호와 연세대 도서관 소장 영인본 중 영인본에서 제외된 15호를 더해 총 63호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역을 포함하여 편수로 110개이다. 같은 제목으로 몇 호에 걸쳐 연재한 경우의 수도 포함하였다. 때문에 작품 수로 따지면 이보다 적다. 『신여성』에

것을 전제한다면 평균 한 호에 한 편 이상의 번역물이 소개되었고, 실제 1호에서부터 폐간될 때까지 ‘역’이라는 명시 하에 지속된다. 일단 『신여성』 번역 텍스트가 당대 다른 매체나 단행본에 소개된 번역물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여성 독자를 전제하고 선택된 기점 텍스트, 즉 원전들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신여성』은 천도교의 부인개조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개벽사의 여성 잡지 『부인』의 뒤를 이어 발행되었으며, 여성잡지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장수한 최초의 여성지였다.¹³⁾ 이미 발행되었던 『신여자』나 『여자계』가 여성 자신들의 목소리로 여성의 문제를 스스로 공론화하고자 했던 매체였으며 필진이 모두 여성이었던 반면 『신여성』은 김기진, 이돈화, 방정환 등의 편집인을 중심으로 박달성, 차상찬, 김명호, 김경재, 이정호, 손진태, 고한승, 윤석중, 정인섭 등 다양한 필자들이 참여한다. 『신여성』이 여성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에 글을 발표한 여성 필자의 비율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줄어든다. 김원주, 허정숙, 나혜석, 김명순, 신알벨트, 주세죽, 황신덕, 조백추 등이 여성필자로 활약한 인물들인데, 남녀 주요 필진들이 모두 유학과 혹은 전문학교 출신의 인텔리들이었으며, 독자도 보통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여고보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여성이 대부분이었다.¹⁴⁾ 발행인 및 필자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남성 지식인 위주였다는 점은 『신여성』이 여성 주체의 잡지가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몽지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번역 텍스트의 경우 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¹⁵⁾ 번역이라는 것

수록된 번역 텍스트들은 번역임을 분명히 밝힌 경우도 있으나 내용으로 추측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번역 텍스트의 수는 유동적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신여성』의 번역 텍스트 중에서 번역으로 추측되는 글보다는 번역이 확실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때문에 추후 실증적인 작업이 보완된다면 『신여성』의 번역 텍스트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1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부록1. 신여성의 탄생.
 14) 위의 책, 부록4. 신여성의 필자.
 15) 『여자계』나 『신여자』에서의 번역의 양상도 『신여성』의 번역 담론의 분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당대 번역들의 젠더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되어야 할

자체가 기점 언어를 잘 아는 번역자가 기점 언어를 모르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번역 행위는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계몽의 시선이 작동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이 실제 『신여성』 번역 텍스트 중 필진을 확인할 수 있는 글에서 『신여성』 전체 필진의 여성 비율보다도 여성 역자의 비율이 훨씬 적다. 즉 『신여성』의 번역은 『신여성』의 남성 편집인들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테레사 현의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번역 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수는 40여명에 이른다. 김명순, 모윤숙, 노천명, 김자혜를 비롯하여 장기선, 장영숙, 조정순, 최정림, 최선화, 전유덕, 주수원, 한충화, 김한숙, 김금주, 김견신, 김메리, 김영애, 규선, 노재숙, 백안자, 백국희, 박도은, 박인덕, 박경숙, 신백희, 서아가다, 서은숙, 석란, 이경숙, 이선희, 이순희, 이선영, 이원희, 연갑순, 유형숙, 유정옥 등의 신여성들과 매리힐먼, 노턴, 언더우드 등 선교사 부인들이 모두 당시에 번역을 발표했다.¹⁶⁾ 이들 번역자의 이름을 『신여성』에서 찾을 수가 없다. 신여성에서 여성 번역자로 확실한 인물은 김란정, 김수임, 박혜숙 정도다. 번역자의 이름이나 필명을 확인할 수 있는 65개 이상의 글에서 여성 번역자를 3-4명이라고 한다면¹⁷⁾ 전체 필자를 기준으로 6% 정도이며 이는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비율이다. 게다가 김란정과 박혜숙은 ‘세계여류운동자 프로필: 소녀 혁명가 전소란’(1931.11)와 ‘여대장 대신 야코브레와 여사’(1932.4)를 소개하였고, 김수임만이 문학 작품을 번역한 여성 번역가로 확인된다.

김수임은 로제티의 시 ‘세 그림자’(1932.4)를 번역하여 소개하였는데, 그녀는 모윤숙의 친구로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의 여학생이었다. 1911년 출생하여 1950년 간첩 사건으로 총살형에 처해진 김수임은 이화여전을 졸업한 미모의 인텔리여성으로 영어회화에 뛰어났으며, 세브란스 병원에

것이나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신여성』으로 한정했다.

16) 테레사 현, 앞의 책, 89~106쪽.

17) 필명으로 ‘거울꽃’이 있는데 꽃이라는 이름이 상기하는 성별이 여성으로 가정한다면 여성 번역자로 확인되는 인물은 4명 정도다.

서 미국인의 통역을 맡을 당시 공산주의자 이강국을 알게 되어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후 미국대사관 통역가로 활동하면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부상하였지만, 1947년 이강국의 월북과 이후 남로당 빨치산 이중업을 월북시키는 등 간첩활동이 발각되어 결국 총살당하는 비운의 여성이었다. 그녀가 22살의 나이에 『신여성』에 소개한 「세 그림자」라는 시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1828~1882)의 작품으로 낭만적인 사랑의 마음을 읊은 시이다. 시의 원저자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로 라파엘 전파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아내의 죽음 후 로세티는 주로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을 심미적이고 육감적으로 노래한 시인으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은 유럽의 상징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세 그림자」 역시 나무그늘과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깊고 푸른 바다와 같은 그대라고 호명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주제로 한 시다. 개벽사의 또 다른 종합교양지 『개벽』의 경우 시 번역은 모두 시인이 직접 했다. 『개벽』에서 시는 36편이 소개되었다. 이는 문학 작품 전체 번역 수 72편의 절반이 되는 수로 번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시들의 번역은 김억, 김명순, 양주동, 효로, 유완희 다섯 시인이 담당하였으며, 이 중에서 김명순이 번역한 시편은 9편으로 전체 시편 중에서 25%를 차지한다.¹⁸⁾ 이에 비해 여성 잡지를 표방한 『신여성』에서는 오히려 여성 번역가의 번역 시가 거의 없다. 『개벽』이 발행되던 시대보다 교육받은 신여성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번역가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던 『신여성』은 번역 텍스트의 선정에서부터 번역에 이르기까지 남성 발행인과 필진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이다. 번역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신여성』 속의 여성은 결국 여성주체로서 보다는 ‘독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계몽되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신여성』의 번역 전략이 독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국한되었다

18) 한기형, 「중역되는 사상, 직역되는 문학」, 『아세아연구』 54권 4호, 2011, 83~84쪽에서 부록으로 제시된 『개벽』의 번역문학과 목록(비평과 작품)을 참고하여 비율을 계산하였다.

는 것은 『신여성』에 수록된 번역 원작 선택에 있어서 더 노골적으로 전략화 된다. 신여성에 게재된 글의 종류를 보자. 『신여성』에서 소개된 번역물들은 크게 문예물과 비문예물로 나뉜다. 이러한 글의 종류는 『개벽』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각각 문예물과 비문예물에 실린 개별 글들의 종류를 보면 『신여성』 번역 글들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신여성』에 수록된 번역 중에서 비문예물의 경우,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 시인이나 작가 및 여성 활동가를 소개하는 글, 사랑과 연애에 대한 글, 육아와 모성에 대한 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원작의 출처나 번역자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글이라 번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당대 다른 매체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일본을 통해 중역된 글들로 판단된다.¹⁹⁾ 여성을 계몽시키고 문명화시키고자 했던 『신여성』에서 편집인들이 선택한 번역 텍스트의 장르와 분야는 역사나 철학, 정치 사회와 자연과학은 제외되었다. 서구문학의 번역비문예물의 경우 『신여성』 편집인들이 선택한 여성 관련 텍스트는 사랑과 자유연애, 결혼, 육아 및 여성 활동가들에 관한 내용이 전부이다. 이러한 내용만이 여성에게 필요하다는 편집인들의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선 여성에게는 낮은 사회제도 및 문화와 경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번역은 『신여성』 안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표 1-1> 『신여성』에 소개된 번역의 종류

비문예물 ;	①사랑과 자유연애, 자유결혼 ②여성 시인 및 작가, 여성 활동가 소개 ③육아 및 모성 관련 기사 ④신어사전류 ⑤광고 ²⁰⁾
문예물 ;	⑥시 ⑦소설 ⑧문학 강좌 ⑨서양 예술 소개 (서양음악, 서양미술, 영화 ²¹⁾ 등)

19)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밝혔듯이 당대 일본 매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을 밝힌다.

20) 광고의 경우 일본의 광고를 거의 그대로 실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번역이기 이전에 베끼기의 차원으로 전달된 것들이 많다. 일부를 번역하거나 혹은 일부를 일본어 광고에서 그대로 따다 옮겨오는 식, 또는 광고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소

이러한 경향성은 근대 계몽기의 번역 내용과도 구분된다. 김옥동에 의하면 계몽기 한국의 서양 문헌 번역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되었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주독립과 번역, 둘째 지리상의 발견과 번역, 셋째 서구문학의 번역, 넷째 국사소설과 조국의 운명, 다섯째 문학 작품의 번역, 여섯째 문명번역이다.²²⁾ 이들 번역에서 여성과 관련된 번역은 1907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다 8월에 출간된 여성 영웅을 소개한 『라란부인전』²³⁾ 정도다. 이는 여성들까지도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당시 구국영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번역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신여성』에 소개된 번역들은 그 내용이나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여성을 위한 번역인 동시에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양의 지(知)를 다양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신여성』의 번역은 애국 계몽기의 번역보다 여성주의적으로 긍정적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지(知)에서 계몽기 번역에서나 『개벽』에서 활발하게 소개되었던 역사, 철학, 정치, 자연과학과 관련된 서양의 지(知)가 제외된 채 사랑과 결혼에 치중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편향성은 서양의 신어를 번역하여 사전처럼 소개한 코너인 『신어사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신어사전』에 소개되어 수록된

개 글을 통해 광고에서도 번역 혹은 베끼기 활동이 이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광고에서의 번역 논의는 생략한다. 『신여성』의 광고 역시 소비자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품, 식품 위주의 광고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선, 「근대 여성 매체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의 소비문화」(『동양학』, 단국대출판부, 2009)를 참조할 것.

- 21) 영화에 대한 소개글이 나오는데, 이 역시 번역이었을 가능성도 높으나 번역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기왕의 연구가 있어 본고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여성에 소개된 영화 관련 내용은 김윤선, 「멜로영화와 여성성: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을 참조할 것.
- 22)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179~257쪽.
- 23) 김옥동, 같은 책, 201~202쪽.

단어 역시 여성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²⁴⁾ 글의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글이든 기준은 동일하다. 성과 사랑과 가족과 결혼, 모성이다. 그나마 1920년대 번역 텍스트에서는 등장했던 적극적인 여성, 활동가로서의 여성 관련 번역 내용은 1930년대 『신여성』 번역에서 사라진다. 여성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변혁할 수 있었던 여성 활동가들의 소개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소개했던 『신여성』은 193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근대 가부장질서에 수렴될 수 있는 여성의 자질들과 관련된 내용이 강화된다. 전체적으로 『신여성』 번역에서는 모던한 여성 즉 근대적인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텍스트라고 보기 어려운 글들과 오히려 반여성주의적인 내용도 빈번하다. 여성 변혁을 위한 성과 사랑, 연애와 결혼 관련 번역들도 표면적으로는 성적 변화와 해방을 통한 여성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 담론이었으나 그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전근대적이라 할 수 있는 수동적이고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상이 제시됨으로써 『신여성』이 번역을 통해 계몽의 목표점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여성상이 과연 여성주의적으로 타당한 모델이 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 예를 보자.

24) 다음은 『신여성』 1931년 1월부터 「신어사전」, 「모던 유행어 사전」에 실린 신어로 명명된 어휘 목록이다. 대부분이 서양어에서 온 외래어들이다. 『별건곤』의 신어사전이 가나다 순으로 근대 문명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된 반면 『신여성』의 신어사전 기술은 여성들에 관련된 어휘들로 선택되었고, 이 어휘들에 대한 설명으로 기술되는데 그 내용이 현재의 관점에서 여성평화적인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로 이어가겠다. 다만 『신여성』에 수록된 신어사전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던 걸, 마네킹 걸, 스타키 걸, 에로틱, 코셋트, 윙크, 오피스 와이프, 몬 아미, 쉐컨 헨, 그류, 오버 워크, 세사, 미디네트, 마티네, 보드빌, 레뷰, 쇼, 싸이드 플레이어, 악팅, 오옥션, 윙크, 스테트먼트, 롬펜 부르조아, 온 페러이드, 헤게모니, 페트러나뉴, 잇트, 프레임업, 좌익 소아병, 후리란써, 깡, 콘트, 암파스걸, 싸루-나, 스포트라이트, 코코, 아라도데, 오버월크, 쉐사, 에네르깃쉬, 드라이, 웨트, 따매, 싸나겐세일, 미디드네트, 자본주의 3기, 프랍퍼, 웨템, 포리스 가젤, 애드벤처어, 납프, 네온 싸인, 테제, 뉴저너리즘, 저너리즘, 데마, 인푸레-순, 데푸레-순, 모라토리움, 하우스 오간, 싸이렌.”

아래는 체호프의 『여자와 연애와 결혼과 기타 - 체호프의 수첩에서』(1924.9)라고 소개된 번역 텍스트이다.

- 총명한 부인 아니 지식계급에 속하는 부인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잘하는 점에서 남보다 출중하다.(32)
- 런에 그것은 전에 굉장했었던 무엇의 쇠퇴한 찌꺼지거나 혹은 미래에 장차 굉장하게 될 무엇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에 잇서서는 결코 차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기대이든 십분의 일도 엇지 못하는 것이다.(33)
- 덩도(貞操)가 깨끗하지 못한 여자는 아모도 손을 대지 않는 오래된 고기 반찬이다. 왜 그런고 하니 다른 누군가 한번은 씹다가 던진 것인 까닭이다.(34)
- 만일 그대가 고독을 실행하거던 결코 결혼하지 말라.(34)
- 그들은 모다 금주회원이다. 그러나 각금 한잔씩 한다.(35)
- 사람이 목이 말릴 때에는 큰 바다라도 다 드리 마실것 갓해 보인다. 그것은 신앙이다. 그러나 먹기 시작해본즉 겨우 두 그릇밖에 먹지 못한다. 이것은 과학이다.(35)
- 그 녀자는 낫븐사람이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착한 것만 가르켰다.(35)

1924년 9월호(2권 6호)에 소개된 『체호프의 수첩』은 체호프가 본격적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전에 필명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글이다.²⁵⁾ 체호프의 글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문학작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작품이기

25) 『신여성』에 처음으로 ‘譯’으로 소개된 글 역시 체호프의 작품이다. 체호프의 단편 소설 『人子와 猫子』(1923.10. 1권 1호)로 김석송(金石松)이 번역하여 소개한다. 그 내용은 두 남매는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에게 천진하고 선량을 관심을 갖고 지켜 보지만, 결국 개에게 그 새끼들이 먹혀버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를 안타까워하는 두 남매와 어미 고양이, 이에 반해 무시하고 냉정하게 묘사되는 어른들,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도 하다. 이 작품의 원작은 1000단어로 쓰는 짧은 희극적인 글로 유머잡지의 일화작가 시절의 체호프 작품이다. 당시 이 글들은 수준 낮은 대중들에게 읽히기 위한 글로 체호프의 문학적 작품성을 인정받은 대표작은 아니다. 그런데 「체호프의 수첩」으로 소개된 이 번역은 「체호프의 수첩」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발췌하여 소개한 글이다. 이 글들은 작품에 나타나는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유머적인 요소가 짙다. 그런데 체호프의 수첩에 실린 글 중 ‘여성과 관련된 글’을 선택하여 번역한 이 글은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을 희화화하는 반주체적이고 반여성주의적인 글들이다. 지식 계급의 여성을 폄하한다든가 연애를 ‘찌꺼기’로, 정조를 ‘손을 대지 않은 오래된 고기반찬’으로 비유하고, 여자는 나빠도 어머니는 착한 위선적인 태도를 희화화 한 이 내용이 여성독자에게 어떻게 읽혔을까? 여성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여성을 조롱의 대상으로 격하시키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의 화살은 번역자 보다는 체호프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체호프의 명성을 이용한 번역의 효과이기도 하다. 체호프의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 텍스트는 그 권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독자들로부터 받을 비난의 여지도 번역자보다는 체호프에게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상적인 여성상을 분열시키는 『신여성』의 번역 전략은 번역자와 발행인들의 젠더 의식의 한계와 여전히 열등하고 비천한 희화의 대상으로서 존재했던 여성성을 보여주었으며, 『신여성』이 지향한 ‘근대적 여성’, ‘신여성’이 남성 주체에 의해 선택된 젠더였으며 그에 따른 한계를 지닌 모순적인 여성 정체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드 킨쓰의 글로 소개된 「자유의지로 결혼하려는 처녀에게」(1924.6)라는 글 역시 『신여성』이 선택한 여성젠더를 드러내 주는 번역이다. ‘처녀성을 날려버릴 때의 감격’, ‘남자를 한번 더 조사해보십시오’, ‘産兒는 優生으로 하도록’, ‘남녀평등의 우정’, ‘결혼기는 짧은 것이 可’, ‘생활을 잘 알고서’, ‘결혼신청을 거절해야 할 남자’, ‘허영은 무용’, ‘둘이서 맛매는 사

랑의 실', '이혼은 악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을 니저버리면'으로 이어지는 소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번역은 이국적인 서구 저자의 글을 통해 여성들에게 조목조목 자유연애와 결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 내용들이 여성 정체성의 확립과 여성의 주체 형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규범을 이입시키는 통로였다. 남편 될 사람의 성격과 육체와 지력을 조사해야 하며, 검약가인지 근면가인지 그의 습성과 즐겨하는 것을 조사해 보라든가, 남편의 인형이나 귀염둥이가 아니라 평등한 우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든지, 남편 될 사람이 아내를 필요한 물건이나 '색욕을 채우는 안전기(安全器)' 혹은 '법률이 허락하는 중'으로 아는 사람인지 등을 경계해야 하며, 허영을 금하고 수입 내에서 생활할 것, 이혼을 나쁘다고만 생각지 말되 둘이서 함께 yür어가는 사랑의 길에 대한 찬미는 당시 유행하던 근대적 결혼과 연애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생생한 서구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달된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 남성에 의해 강요된 결혼이 아닌 결혼의 주체자로서 부상한 여성의 지위와 이에 따라 지녀야 할 자질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변화된 여성, 변화되어야 할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주의적인 글이기도 하다.²⁶⁾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조'나 '육아 및 출산'에 대한 견해는 문제적이다. '처녀가 혼인날부터 아조 처녀생활을 쉰날 쉰에는 엇더한 감격(感激)을 느낍니다. 그 고흔 색씨가 이제까지 귀엽게 직혀온 존귀한 비밀(秘密)을 자기가 선택한 한 남자에게 앗김업시내어 밧칠 쉰의 미묘한 심리에서 니러나는 이상한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은 정당한 결혼에서뿐 어더 늦길 수 잇는 것임은 물론입니다.'(밑줄, 인용자)라거나 연애나 결혼의 목적이요 꽃이 '어린 아가의 열매에 의하여 점점더 충실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이르면 이 글이 자유연애와 결혼을 위해 여성들이 갖춰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전히 가부장적인 순결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이데올로

26) 이 외에도 여성해방사상 및 자유연애에 대한 번역물로는 七寶山人의 『카펜터의 연애관-자유 없는 곳에 사랑이 없다 : 위인의 연애관-카펜타, 칼맘스, 에렌케이, 톨스토이, 빠구닝』(1926.1)이 있다. 역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기를 강화하기 위한 남성 주체들이 바라는 즉, 『신여성』 편집인들과 번역자들이 희망한 여성 젠더를 드러내는 텍스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당시 『신여성』의 독자인 신여성들이 따라줘야 할 근대의 모럴이자 생활 방식이었고 남성주체가 선택한 여성 젠더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 시인, 여성 작가, 여성 활동가들을 소개한 글들이 있는데 원저자나 원작품을 확인할 수 없는 글들로 내용상 대부분 중역이라고 볼 수 있는 글들이다. 특히 『신여성』의 발행인과 편집인들이 『개벽』의 경우와 같은 인물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여성』의 번역 전략 중 일부도 『개벽』의 번역 전략과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개벽』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여성』에서도 번역 텍스트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세워 문예물과 비문예물로 나누되 비문예물의 경우 일본을 통한 중역의 흔적을 지웠을 수 있다.²⁷⁾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다만 이러한 글들을 중역으로 인정할 때 이 번역텍스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성들이 인도의 여류 시인 사로지니 나이두 여사(1925.9 ; 1931. 11), 병신학자 헬렌 케라(1924.9) 여성의 혁신생활, 세계 여류 운동가들로 로자 룩셈부르크, 소녀 혁명가 전소란(1931.11), 중국의 잔다르크 청말의 추근 여사(1932.10), 현대 불란서 여류작가들(1932.10)과, 여성은 아니지만 입센의 여성주의(1926.1)로 『신여성』의 번역 텍스트들이 지향했던 당시 여성상은 현실 변혁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준 투사와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로 모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인물과는 별도로 서양의 예술가인 르누와르(1925.1)와 밀레(1925.2)가 소개되었는데, 르누와르는 ‘천박하다는 여자를 일평생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밀레는 ‘성녀 같은 그의 할머니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남성 예술가이지만 여성 인물과의 연계성 속에서 소개된다. 천박하지만 남성 예술가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여성으로 창조될 수 있었던 르누와르 그림 속의 여성이나 훌륭한 예술가

27) 한기형은 『개벽』의 경우 사상과 관련된 텍스트는 중역을 따르고 문학 번역은 직역을 고수하는 이원화 전략을 썼다고 주장한다. 한기형, 『중역되는 사상, 직역되는 문학』, 『아세아연구』 54권 4호, 2011 참조.

를 위해 성녀 같은 희생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인물로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모두 남성적인 시선에 의해 선택된 여성인물인 동시에 당대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신여성』에 소개된 번역 중에서 비문예물의 경우 서구 근대 여성 젠더를 통해 조선의 전근대적인 여성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면적인 목적과는 달리 남성적 시선과 여성을 바라보는 전통이나 전근대적 시선이 잔존했던 당시 조선의 현실이 투사되고 남성에게 의해 선택된 젠더로서의 여성상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신여성』에서 비문예물의 번역인 경우 중역된 텍스트가 많았으며, 이 번역물들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여성상과 봉건적이고 희생적인 구시대적인 여성상이 혼재해 있는 텍스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주체는 주로 여성 자신이 아니라 남성이었으며, 그들에 의해 선택된 전통적 혹은 전근대적이며 반여성주의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구의 여성상이 번역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엇갈린 주체, 선택된 젠더이기도 했다.

<표 1-2> 『신여성』 비문예물 번역, (추정 포함, 번역임을 대부분 명시 안함) 28)

발행일	필명	본명	원저자	제목
1924.03.	一記者			불란서의 여학생 생활
1924.05.	李亨雨			五月女王 (소개 및 번역)
1924.06.			킨쓰	자유의지로 결혼하려는 처녀에게 (아드·킨쓰)
1924.08.	一記者			세계유일의 신병학자 헬렌·캐라-여사
1925.01.	金東漢			露西亞남녀의 정월노리
1925.02.	安			전원화가 밀레
1925.02.	SJ			부인해방운동사 (1) : 부인운동의 조류
1925.08.			에로센코	나의盲학교 생활
1925.09.	曉路		小川未明	두 가지의 견문에서
1926.01.	七寶山人			위인의 연애관 - 카페타, 칼 맑스, 에렌케이, 톨스 토이, 빠구닝

28) 『신여성』 번역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여성문학학회 세미나팀의 도움이 컸다. 이 팀과 함께 한 공동 작업이 없었다면 이러한 자료 정리 작업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 목록화 작업은 세미나팀의 결과물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이곳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밝힌다.

1926.01.	劉禹相		여성의 혁신생활 - 입센의 여성주의
1926.03.	栢烽	에로센코	호랑이의 꿈 (1)
1926.03.	梁明		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1) - 부녀의 사회적 지위
1926.04.	梁明		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2) - 남녀관계의 역사적 변천
1926.05.	燕京學人		미래 사회의 남녀관계 -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3)
1926.06.	外觀生		여권운동의 어머니인 ‘엘렌케이’ 여사에 대하여
1931.01.			모던 신어사전
1931.01.	雙S生		여류운동가 墨스타-傳
1931.04.	蛾眉	슈니첼	제로니모와 그의 형
1931.11.	金蘭丁		세계 여류운동자 프로필 : 소녀혁명가 田少蘭
1931.11.	金河星		세계 여류운동자 프로필 : 로-자·룩셈부르크
1931.11.	柳小梯		세계 여류운동자 프로필 : 사로지니 나이두 여사
1932.01.		古川綠波	攝影所の 一日
1932.04.	朴惠淑		여대장 大臣 야-코브레와 여사
1932.04.			신어사전
1932.05.			신어사전
1932.06.	黎曉生		세계동향
1932.06.			신어사전
1932.06.		佐藤得齊述	부인상식 -부인병이란 어떠한 것이며 그 결과는 엇지되나
1932.07.		佐藤得齊述	부인병이란 어떠한 것이며 그 결과는 엇지되나
1932.07.			신어사전
1932.08.			신어사전
1932.09.			신어사전
1932.10.	丁來東		중국의 짚다크 청말의 秋瑾여사
1933.01.		岡邊一夫	왜 조흔가
1933.01.		柳せい子	남편업는 동안 페렴가다루로 지극히 고생한 나머지
1933.01.		岩佐幸三	불치라고 탄식한 폐결핵이 경쾌되기까지의 신요법
1933.03.		加賀다쓰	임산부 필독의 安産실화
1933.08.		仁志緒澄子	명량한 생활을
1933.09.		岩木信江	모유부족과 상습 변비가 낮고
1933.09.		森野芳子	늑막염을 고친 이야기
1933.12.		小田美穂	미와 젊음을 뺏는 腸 자가증독담
1933.12.		짜드빅	전기광고 (폴·짜드빅)
1933.12.		細野尙是	모유를 먹여 조흔 어머니의 병과 그러찬은 병
1934.01.		細野尙是	냉증의 치료
1934.01.		小田美穂	영양불량한 아기는 학교성적까지 불량
1934.03.		佐佐木照子	늑막염이 악화해야 유서까지

4. 왜곡된 젠더, 젠더의 번역화

『신여성』에서 번역은 문예물 번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신여성』에 소개된 최초의 번역이 문예물이었던 것처럼²⁹⁾ 문예물은 원작자와 번역자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 다른 번역 텍스트와 차별화하였다. 문예물의 경우 대부분 해당 작품의 저자와 번역자를 소개한 직역의 형태로 제시되고 번역자의 의견이 번역 글 서두나 말미에 기록됨으로써 번역자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기도 한다. 사실 『신여성』에서 번역이 확실한 글은 문학 작품 번역의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번역을 통해 여성독자에게 서구 근대 사회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작품 감상을 통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즉 『신여성』에서 서구 문학 작품의 번역은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상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한국 근대 여성젠더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런 의도는 작품 선별에서 드러난다. 『신여성』에 문예물은 모파상, 체호프, 하이네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들은 여성의 문제를 주로 다룬 작가이거나 낭만적인 시를 쓴 시인이다. 이들 외에도 웨그네르, 폴 모랑, 타고르, 푸쉬킨의 작품이 소개되었고, 주제별로는 사랑과 연애에 관한 작품이 가장 많았다. 사랑과 연애를 주제로 하지 않은 작품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특히 여성 인물들이 주인공이거나 문제적인 작품이 대다수였다. 다음에 제시한 <표 2-1> <표 2-2>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학 작품의 번역인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가장 많았고, 동양권 소설은 없다. 당시 지향해야 할 가치가 서구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르이다. 작품들은 대개 직역의 형태로 번역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일본의 중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⁰⁾ 대개가 줄거리 위주로 요약된 형태였지만,

29) 주 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여성』에 처음으로 ‘譯’으로 소개된 글 역시 체호프의 작품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주 22)번을 참조할 것.

30) 번역의 이원화와 중역의 가능성은 『개벽』과 『신여성』이 같은 개벽사에서 발행되었고 같은 편집인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신여성』 역시 일본을 거쳐 중역되었을

‘역’이라는 분명히 밝힌다. 심지어 작품 서두에 ‘역자의 변’을 게시하여 역자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역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번역자의 변은 한 단락 이상으로 긴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주제를 밝힌 글로 그 예를 하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누가 자기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으랴?」 섹스피어는 유명한 「오텔로」의 비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섹스피어는 「유리어스·시저」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原子-영아(嬰兒)가 있습니다. 그길을 누가 선견(先見)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연한 것은 사회제도입니다. 공평은 무시되었습니다.

제도의 양극단에 있는 두 영아! 이 중간계급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영아 자신에게 부담시켜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여야 할까요. 그것이 피안시되는 조그마하고 크나큰 암시가 여기 있습니다. (역자)³¹⁾

이처럼 문예물의 경우 번역자는 번역인지 아닌지, 번역인 경우에도 역자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은 비문예물과는 대비된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예물인 경우 번역임을 분명히 밝히고 원저자와 번역자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원작과 번역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한 태도이다. 또한 이는 『신여성』에서 번역을 명시하지 않은 대부분의 비문예물 기사와도 구분된다.

「라인 美話- 로렐라이」(1924.7)³²⁾는 로렐라이 노래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1890년에 ‘명치창가’에 ‘해로(海路)’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불렸다. 실제 독일에서도 C.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직역과 의역이라는 번역 논쟁이 해외문학과에서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1930년대 이후의 번역인 경우 직역의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1) 존 골스위 | 여 作, 「(소설)두 왕국의 왕」, 김광섭 역, 『신여성』 1933.6, 88쪽.

32) 이후 작품명 옆에 작품이 나와 있는 연월은 해당 『신여성』의 게재연월이다.

렌외도(1778-1842)가 설화시로 발표한 것을 1822년 하이네의 로렐라이로, 다시 1837년 독일민요 로렐라이로 정착한다. 노래로 알려진 로렐라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라인전설이라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슬픈 로렐라이 전설에 바탕을 두면서도 『신여성』에 傳說奇話로 번역 소개된 『라인미화』는 계급을 초월한 독일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이다. ‘라인강의 전설! 라인의 슬픈 이야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남녀가 애타는 가슴을 조리였으며 얼마나 만흔 눈물과 한숨과 김뿜을 뿌리였겠습니까? 멀고 먼 독일 나라이지만 너모도 시대시—하고 아름다움으로 한아씩한아씩 번역해서 여러분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쓸쓸하고 위안이 적은 우리네 생활 가운데 혹 조고만 위로라도 될가함이외다 譯者’³³⁾라는 역자의 소개로 시작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베루나는 라인강 여신의 도움으로 사랑을 호소하게 되고, 그 사랑의 호소는 결국 명문가의 딸 말가레트의 마음을 얻지만 두 남녀는 말가레트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한다. 그러나 명문가족의 아들로부터 온 청혼을 거절하지만 ‘젊은남녀의 사랑에 동정을 표할 만큼 시대인 사람이 못되’는 성주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말가레트와 실연의 상처로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떠난 베루나는 훗날 우연히 이태리 여행에서 만나게 되고 이 사연을 알게 된 로마법왕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이다. 본격 소설이 아닌 전설로 소개된 내용이지만 1920년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주창했던 『신여성』의 다른 기사 내용과 합치하는 자유연애사상을 담은 주제다. 선남선녀의 등장, 운명적인 사랑과 첫눈에 반함, 아버지의 반대, 실연의 상처로 죽어가는 남녀, 은인의 도움으로 결혼 성공이라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는 우연적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여성』의 독자층인 여성들에게 자유연애와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 서구 독일 사회의 문명화된 이야기로도 읽혔을 것이다.

이들 작품 외에도 산문소설로 소개된 『실연한 남녀』(1925.7)는 주 서사

33) 『라인미화』, 고한승 역, 『신여성』, 1924.7(여름 특별호), 84쪽.

는 연애 실패담이지만 결말에 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이다. 독일을 배경으로 한 슬픈 애사에서 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실연한 남녀』에서 여주인공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낸 후 슬픈 삶을 살다가 한 은사에게 자신은 죽겠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자신이 찾던 에드윈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여자의 비애, 그 비애로부터 구원해주는 은사로서의 남자라는 구조는 근대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전근대적으로도 읽힌다. 다만 이 모든 작품들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미녀로 묘사되고 있고 그 미녀들의 이야기가 사랑의 서사로 전개된다는 점은 정형화되어 있는 설정이며 결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랑의 승리, 해피엔딩이 주조를 이룬다는 점은 1920년대 초 『신여성』에 번역 소개된 사랑 서사의 공통점이다.

또 한 편의 라인강의 전설로 소개되는 『사랑과 맹세』(1929.10) 역시 어여쁜 소녀가 등장한다. 그런데 같은 라인강의 전설을 소재로 한 이야기이지만 그 결말은 『라인미화』와 다르다. 한 무사가 깊은 산속에서 이 소녀를 알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녀가 준 마력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 그러나 일신상의 영광을 위해 그녀를 배신하고 대장의 딸의 청혼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식 날 신랑 신부 모두가 급류에 빠져 죽게 된다. 그리고 대개의 전설이 그러한 것처럼 후일담으로 지금도 대폭풍우가 부는 날에는 원망스럽게 우는 여인의 소리와 불쌍한 어린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사랑과 맹세』는 『라인미화』와 결말은 다르지만 사랑을 주제로 했다는 것에는 일치한다. 그 사랑을 배반했을 때 따라오는 비극적 결말은 그만큼 독자들에게 사랑의 위대함과 중요함을 설파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초기 서구의 작품을 번역한 문예물의 내용은 사랑을 주제로 한 자유연애와 결혼이었다. 이는 1920년대 여성 모더니티의 주제와도 일치하며, 1920년대 『신여성』에서 번역의 주를 이루었던 비문예물의 주제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사랑을 주제로 한 문예물도 1920년대 번역물과

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³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의 새드엔딩이다. 노인이 되어 어린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산책을 한다는 내용의 「추억」(1931.1)이나 푸쉬킨의 대표작으로 엇갈린 운명과 불행한 사건으로 헤어진 두 연인이 훗날 재회하지만 다시 이별한다는 내용의 「예브게니 아네긴」(1933.8), 아픈 아내에게 라디오를 사주기 위해 불리한 게임을 한 복싱선수의 아내 사랑이야기인 「느진 가을」(1933.12), 다른 남자의 첩 이름과 자신의 아내 이름이 동일하여 아내를 의심하게 된 의처증 남편의 이야기인 「거리의 삽화」(1933.12) 등 사랑의 서사로 번역된 작품들이 실연이나 이별로 끝나는 새드엔딩이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실연한 남녀의 상처 입은 마음과 비애를 다루고 있어 『신여성』에서 번역한 사랑의 서사물들이 당시 『신여성』을 비롯한 근대적인 매체와 글을 통해 강조했던 자유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장과는 모순적이기도 했다. 제재에서는 사랑과 연애를 다루고 있지만 그 서사의 결말과 내용은 슬픔과 애상의 정조가 우세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여성 젠더는 사랑에 실패한 나약하고 슬픈 여성들이었다.

사랑의 서사 이외 번역된 소설들에서도 아름답지만 비운의 삶을 살거나 파멸하는 여성 인물들은 계속 된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셋째 딸 코델리아가 두 딸에게 속아 죽을 운명에 처한 아버지를 구하려다 결국은 죽고 마는 「리어왕」(1924.8) 속의 코델리아, 질투심에 언니의 애인을 죽게 만든 여동생이 임종을 하면서 언니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모파상의 「고백」(1925.1)에서의 여동생 말크릿트, 서

34) 「사랑과 맹세」는 새드엔딩이기는 하지만 그 주제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926년 번역 작품인 「새로운 동무」(1926.2)에서부터 『신여성』의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보다는 새드엔딩의 서사가 주를 이룬다. 「새로운 동무」는 폴이라는 한 남자가 파리에서 자신과 이름이 비슷한 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그녀를 만찬에 초대하지만 다른 여자인 아녜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로 폴의 사랑은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이처럼 사랑의 새드엔딩은 1930년대 번역 작품에서부터는 대거 등장하고 문예물의 주요서사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을 참고할 것.

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라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하고, 그 후 혼자 남은 여자는 북쪽 성으로 가는 길을 짓기 시작하지만 떨어지는 별을 붙잡으려다 실족한다는 에로센코의 「떠러지령으로 쫓는 탐」(1926.1)의 여주인공, 인어공주로 알려진 「영혼 바든 인어」(1926.8)의 여주인공 인어, 병사들의 만행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조고만 대비극」(1933.12)의 아내 마르다 등 대부분의 여성 인물들은 아름답지만 비운의 삶을 살아가는 슬픈 운명의 인물이다. 이것이 『신여성』 편집인들의 분명한 기획이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럽 문학을 중심으로 세계 문학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⁵⁾ 이는 텍스트의 직역 문제라기보다는 작품 선별 국가와 내용 선택의 문제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문예물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신여성』의 번역은 『개벽』과 마찬가지로 서구 문학의 직접 번역을 강조했다지만 실제 당시 일본의 경우 번역 활동 자체가 유럽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수동적인 여성 인물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때문에 일본의 매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일본을 통한 『신여성』 번역 문예물의 현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이 선택했던 문학 작품을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신여성』의 번역 문학작품들은 여성 젠더의 주체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거나 재창조하지는 못한다. 단지 아름답지만 비운의 삶을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인 여성 인물의 설정과 비극

35) 한기형은 『개벽』의 문학 작품 번역의 경우 대부분 중역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서구문학의 조선적 수용은 무매개적 직접성으로 표상되며 이는 억압된 사상을 대신해서 문학을 통해 근대주체를 수립하려는 시도였으며, 일본어 번역 문학과 조선어 번역 문학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문학에서만큼은 제국을 매개하지 않으려는 식민지인의 심층심리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의 논의를 인정할 때, 조선의 문학은 중역임을 속이면서 얻은 독립성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는 실증적 검토를 통해 그 이식성을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계에 대한 인식과 확인 없이는 제국으로부터 독립적인 한국의 근대 문학, 제대로 된 번역 문학 모두 아직도 요원한 것은 아닐까? (한기형, 같은 글, 79~80쪽 참조.)

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학 텍스트를 통해 이국적인 정서를 체험하고 서구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 여인들의 비운에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여성』에서 번역된 여성 인물들이 독자에게 줄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것은 『신여성』 편집 및 번역자에 의해 ‘왜곡된’ 젠더의 모습이 식민지 조선 여성들에게 고통과 슬픔이라는 정조로 그들과 동화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여성』을 통해 조선 여성 독자들에게 번역되어 소개된 서구 여성 인물들의 새로움은 서구의 여성이라는 지역성에서 보장되었을 뿐, 『신여성』이 표방했던 계몽의 주체로서의 여성 주체를 형상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나약한 인물들이었다. 이는 『신여성』의 다른 기사에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보여줬던 내용과는 상충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계몽의 주체가 아닌 계몽의 대상으로서의 여겼던 『신여성』 발행인 및 편집인의 젠더 의식을 보여주는 당연한 전략 및 성의식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소설 : 사랑과 연애

날짜	제목	저자	역자	국가	종류
1924.7	라인 美話 - 로레라이		고한승	독일	傳說奇話
1925.7	실연한 남녀 Edwin and Angelina	골드 스미스	방생	독일	산문 소설
1926.2	새로운 동무	폴 모랑	이상화	프랑스	
1933.8	예브게니 아네긴	푸쉬킨			운문소설
1929.10	라인전설 - 사랑과 맹세			독일	헨벨크의전설
1931.1	추억 IMME SEE	슈트롬	거울꽃	독일	
1931.8	예브게니 아네긴	푸쉬킨	함대훈	러시아	운문 소설
1933.12	느린 가을	타나 빼넷트	사우춘	오스트리아 ³⁶⁾	현대인기작가 단편집
1933.12	거리의 삽화	듀발노아			

36) 국가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지만 본문 중에 화폐단위로 ‘실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오스트리아나 독일로 판단된다.

<표 2-2> 사랑과 연애 외

날짜	제목	저자	역자	국가	종류 / 기타
1923.10	인자와 묘자	체호프	김형원	러시아	
1924.3	기적	벨튼 글라인	주요섭		
1924.3	잠자는 여왕				
1924.8	리어왕	섹스피어		영국	여학생극
1924.11	볼라의 꽃가지	지리코프	고한승		
1924.12	로-자의 희생		포우		
1924.12	코코, 코코, 시원한 코 코입니다.	모파상	박영희		
1924.12	로자의 희생 - 불국미 담, 파리의 화		포우 (抱宇)		사실담
1925.1	고백	모파상			
1925.1	단장	외싱턴 어빙	이상화		
1925.8	월야	모파상	회산		
1925.1	호민관 리엔지	웁네르(바그너)	이은상		(가극)
1925.10	문어지려 찢는 탑	에코센코	박영희	러시아	
1926.1	떠러지령으로 찢는 탑	에코센코	박영희	러시아	
1926.1	파리의 밤	폴 모랑	이상화	프랑스	
1926.8	영혼 바든 언어		고월		
1931.5	제로니모와 그의 형	슈니켈	아미	오스트리아	세계명작순례
1933.12	전기광고	폴 짜드빅			탐정소설
1933.12	조고만 대비극	펠라테스 푸로레스	남강춘		
1933.6	두 왕국의 딸	존 골스워어	김광섭		
1933.6.9. 10.12 1934.1.3.4	아기가 본 세상	웁네르 (웁그네르)	이헌구	독일	
1933.12	거리의 삽화	H. 듀발노아			
1935.10	아이다의 꽃 little Ida's Flowrs	안데르센		독일	

<표 2-3> 시 번역

날짜	작품명	시인	역자	국가	기타
1926.1	무덤의 사랑*	하이네	금원	독일	
1931.4	투르게네프 시6편 : 기도, 싸호자, 내일!내일!, 늙은이, 만족, 거지	투르게네프	김안서		
1931.5	사월의 노래	서라 티즈데 일 여사	이하운		
1931.5	바다가에서	에브게니아 마르스 여사	김안서		

1932.4	세 그림자	로세티	김수임	영국	
1932.4	플랜더-쓰 전지(戰地)	맥클레이	박길래	미국	
1933.3	동정, 종이배, 챔파꽃 (3편)	타고아	윤석중	인도 (영국)	영문동시집, 초생달 (The Crescent Moon)에서 번역.

<표 2-4> 외국 문학 강좌

날짜	번역 기사명	지은이	역자
1925.8	나의 맹학교 시절	에코센코	
1932.10	현대 불란서 여류 작가 군상		이헌구
1933. 3	외국 문학 강좌- 올리 -뷔 폴드 스미스		박상엽(서울 프레스사)

5. 나가며 : 남은 과제

본고는 『신여성』 매체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번역의 특성과 전략을 젠더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1920년대와 1930년대 『신여성』에 실린 번역들이 그 시대가 요구했던 새로운 여성의 모더니티를 규정하고 근대 여성, 구체적으로는 신여성의 정체성의 범주를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준 모종의 전략적 지점이었음을 분석하였다. 『신여성』에 소개된 번역들은 그 내용이나 종류가 당대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여성을 위한 번역인 동시에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양의 지(知)를 다양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신여성』의 번역은 애국 계몽기의 번역보다 여성주의적으로 긍정적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지(知)에서 계몽기 번역에서나 『개벽』에서 활발하게 소개되었던 역사, 철학, 정치, 자연과학과 관련된 서양의 지(知)가 제외된 채 사랑과 결혼에 치중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여성』의 번역은 표면적으로는 주체적인 여성 자아, 근대적 여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서구 여성 젠더를 통한 근대 지식의 통로였다는 점에서 근대 여성 모더니티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여성이 번역의 주체로 설 수 없었으며 남성에 의해 선택되고 담론화 되어 이입된 여성의 현지화로서의

번역이라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 즉 『신여성』의 번역은 여성을 또 다른 근대적 규율과 가부장질서 속에 적응시키고자 한 이데올로기 과정의 징후도 보여주었다. 그런 면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신여성』의 번역은 여성 젠더에게는 모더니티 형성이라는 긍정적 역할 뿐 아니라 근대적 규율과 가부장 질서의 존속에 대응하고자 했던 비판과 저항의 텍스트가 되어야 했다. 때문에 일방적인 독해의 수동적 독자로서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이해하고 비판하고 현실에 재적용할 수 있는 여성 독자들의 능동적 역할을 요구한 매체가 『신여성』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규명할 수 있을 때, 『신여성』에 수록된 번역은 여성 모더니티 형성을 위해 가장 혁신적인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서양의 여성, 서양의 근대 문물로 여성을 계몽하고 여성의 모더니티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신여성』의 번역 담론은 제국의 언어를 조선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남성에게 의해 다시 선택 배제 창조되는 과정에서 중층의 ‘번역된’ 여성의 텍스트로 변하였으며, 그런 면에서 『신여성』의 번역 담론은 주체로 설 수 없었던 여성, 제국의 시선으로 굴절된 여성, 남성에게 의해 다시 왜곡된 여성 안에서 균열되는 여성성을 내재하였다. 이는 특히 『신여성』 매체 안에서 여성 필자가 점할 수 있었던 위치와 역할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신여성』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매체나 각각의 번역 텍스트들에서 번역은 여성의 근대적 자아 형성과 모더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서는 『신여성』을 전후한 시기의 여성 잡지와 여성 번역가들의 번역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를 비롯한 번역 텍스트 안에서의 젠더론의 활성화와 연구 방법 개발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서로 동등하게 교환될 수 있다는 번역의 허구적 인식에서 벗어나 언어 문화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로부터 젠더적 가치를 협상하고 창출해내는 여성주의 번역 및 번역 연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젠더 불평등, 언어 불평등 안에서 원천 텍스트의 남성중심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번역 주체로서 여성이 활동할 수 있을 때 『신여성』이 표면적으로 표방했던 주체적인 여성 자아, 근대적 여성의 실현이 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이 여성들에게도 주체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즉 여성번역가와 여성독자가 타자화 되지 않고 기점텍스트와 목표텍스트 사이의 번역의 자장 안에서 기존 가부장질서의 틈새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텍스트의 주체이자 저항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그런 여성이야말로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여성 주체가 될 수 있다. 번역과 젠더에 대한 논의 역시 이러한 여성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앞으로 당대 여성 번역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번역이 여성에게 미쳤을 여성독자 분석 연구와 실증적인 논의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주의 사상이 반드시 서구에 의해서만 이입되었는지, 혹은 여성의 모더니티는 조선의 현실 내에서 자생적인 가능성을 포착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천착을 위해 고전문학과의 연계 연구를 통한 우리 안에 여성주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고전 문학에서 중국고전을 언문으로 번역한 과정과 서양어나 일어를 한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파생된 언어의 변화와 문명의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고찰도 필요하다. 언문이니 암말이니 하며 여성의 문자로 폄하되던 한글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표하는 공식 언어로 자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한글의 변화는 여성주의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번역이 한글을 민족의 문자이자 국가의 언어로, 사상과 근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젠더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남은 과제로 남겨 놓으며 이러한 젠더와 번역 연구가 페미니즘 번역 활동과 여성 지(知)의 발전 및 여성 해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신여성』, 『개벽』, 『별건곤』

2. 단행본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_____, 『한국현대번역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88.

김상태 편, 『근대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문학』, 푸른사상사, 2003.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_____, 『번역의 미로』, 글항아리, 2011.

_____, 『근대의 세 번역가 서재필 최남선 김억』, 소명, 2010.

테레사 현, 『번역과 창작-한국 근대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편, 『한국문학의 근대와 근대성』, 소명, 2006.

조의연 엮음,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언어적 · 문화적 · 사회적 접근』,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현태리 지음(Theresa Hyun), 김순식 엮음, 『번역과 한국근대문학』, 시와시학사, 1992.

마루야마 마사오 ·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야나부 아키라, 김옥희 역,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2011.

리디어 H, 류, 『통언어적 실천』, 1995.

코모리 요이치, 정선태 역, 『일본어의 근대』, 소명, 2000.

Roman Alvarez & M. Carmen-Africa Vidal 엮음, 윤일환 역,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7.

3. 논문

- 김양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소설화와 그 한계-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36, 2006, 181~202쪽.
- 김운선, 『근대 여성매체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의 소비문화』, 『동양학』 49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9, 41~61쪽.
- _____, 『멜로영화와 여성성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299~328쪽.
- 김윤희, 『한국 근대 신어연구(1920~1936년)-일상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2010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2010, 1~20쪽.
- 박선주, 『(부)적절한 만남-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영미문학연구회, 『안과 밖』, Vol.32. 2012, 289~317쪽.
-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 : 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 역사』 12, 2010, 189~230쪽.
- _____, 『소비하는 여성들 : 1920-30년대 경성과 욕망의 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2010, 127~156쪽.
- 소영현, 『젠더 정체성의 정치학과 ‘근대/여성’ 담론의 기원 ; 『여자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21~148쪽.
- 안미영, 『한국근대소설에서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 『비교문학』 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109~131쪽.
- 이승희, 『입센의 번역과 성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7~68쪽.
- 이지영, 『1910년 전후의 신어 수용 양상』, 『돈암어문학』 23, 돈암어문학회, 2010, 97~122쪽.
- 이태숙, 『여자 유학생의 근대인식과 공유장 : 『여자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9, 2011, 353~374쪽.
- 이화형 · 유진월, 『서구 연애론의 유입과 수용 양상』, 국제어문 32, 국제어문학회, 2004. 209-234쪽.
- 장정희, 『1920년대 타고르 시의 수용과 소파 방정환의 위치』, 『인문연구』

63호, 2011, 1~28쪽.

한기형,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2010, 447~490쪽.

_____, 『“법역(法域)”과 “문역(文域)” : 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309~339쪽.

_____,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416~446쪽.

_____, 『근대어의 형성과 한국문학의 언어적 정체성 ;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근대소설의 기원에 대한 매체론적 접근』,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9~35쪽.

_____, 『중역되는 사상, 직역되는 문학』, 『아세아연구』 54권 4호, 2011, 65~85쪽.

황호덕, 『국어와 조선어 사이, 內鮮語의 존재론-일제말의 언어정치학, 현영섭과 김사량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58집, 2007, 135~182쪽.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 (없는) 정치-루원 룡잉쥬 김사량 ‘阿Q’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제63집, 2008, 375~423쪽.

황호덕, 『근대 한어(漢語)와 모던 신어(新語), 개념으로 본 한중일 근대어의 재편』,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10, 263~305쪽.

Abstract

Gendering of translated text and women's modernity

-Focused on *Shin yeosung-New age women*-

Kim, Yun-sun

This article with an aim to consider from the gender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 strategy of foreign translation that can be found in the media <Shin yeosung-New age women> to determine the modernity of those translations published in <Shin yeosung> in 1920s & 1930s and analyzed that it was a certain strategic point to have given an influence in solidifying the criteria of identity of modern women specifically new generation women.

This article identified gender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he Hangul translation text of its beginning and the translated text of its target language is to be determined and named this process as gendering in this translation study.

This article examined what was the modern knowledge argument that was attempted for modernity then Korean women by the translated text of <Shin yeosung> based on style, genre & content, of the subject of translation, finally focused on the strategy appeared in such text, and how the merits and demerits can b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From the feminist view point, the translation of <Shin yeosung> performed positive role in developing modernity to female gender but at the same time, indicated biased characteristics of gender as they were selected by male gender thus it also was a text of

criticism and resistance that contains the limit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modern discipline and patriarchal order.

Key words : Translation, gender, modernity, modern female subjectivity, <Shin yeosung-New age women>, gendered translation of the text, the translation of gender, women's identity, feminism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